

웰빙가족이 바라는 즐거운 농촌나들이



정민두 대표
편안한가족여행'

몇 년 전 필자가 처음 농촌체험을 다닐 때만 해도 '농촌체험'은 생소하고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농촌체험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람직한 체험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 하다. 또한 많은 농촌 마을들이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002년 5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농촌체험을 약 30회 정도 다니면서 요즘 가족들이 바라는 농촌체험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농촌체험을 선택한 가족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일반 관광상품이 아닌 농촌체험 상품을 선택했을 때에는 비장함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거의 100퍼센트 어린자녀를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비해 농촌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자녀들을 동반하여 찾는 것이다. 또한 아

이들은 사교육에 시달리고 부모들은 맛별이로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뜻 깊은 농촌체험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것이기도 하다. 즉,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농촌에서 '정'이라는 것을 느끼고 직접 흙을 만지고 물놀이를 하며 농산물도 수확해보면서 자녀들에게는 책으로 보는 지식이 아닌 산지식을, 어른들에게는 휴식을 위해, 농촌체험을 선택한 것이다.

1. 농촌체험거리가 다양해졌으면 한다.

농촌체험이 일반화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마을과 관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한다면 좋은 체험거리들이 많이 개발되리라 생각된다.

(예) 수박체험-올 봄, 충남 부여 '수박따기' 체험에 참가하였다. 애초에 수박따기를 하려했지만 수박이 모두 중간거래상에 넘어가 체험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부여의 마을 관계 공무원들이 애쓰고 힘을 써 판매하려는 수박

1) 편안한가족여행(www.easyclub.net)은 아이들과 함께 농촌체험, 휴양림, 레포츠, 각종 캠프 등을 즐기는 가족모임이다. 현재 가입된 가족은 약 7천 가족이다.(다음카페 기준)

을 확보하여 성공적으로 ‘수박따기’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의 지역 사랑과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열린 마음으로 다 우리고장이 잘되는 길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

2. 눈앞의 이익보다는 좀더 멀리 내다보았으면 한다.

우리가 농촌의 토속 음식을 먹고 처음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어서 다음에 다시 올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다시 찾게 된다. 그러나 다시 찾았을 때 종종 음식가격을 슬그머니 올리고 양도 줄어든 것을 보게 된다. 또 어떤 체험행사는 너무 상업적이라서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곳도 있다. 한번은 농장에 ‘밤따기’ 체험을 하러 간 적이 있다. 농장 밤나무의 밤이 바닥에 다 떨어져 있는 것을, 농장 관계자는 원래 밤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미리 수확을 해서 품질이 좋은 밤들은 농장에서 거둬가고 나머지 하품들을 바닥에 체험행사를 위해 다시 뿌려놓은 것이었다. 이러한 좋지 않은 경험들은 그 농장을 다시는 찾지 않게 하고 농촌체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마을입장에서도 당장은 이익이 발생할 수



▲ 감자캐기체험에 참가한 아이들

있겠지만 이는 먹거리를 포함하여 볼거리, 체험거리에도 참여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마을 자체를 찾지 않게 되어 마을에 손해가 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3. 체험객들이 원하는 식사는 무엇일까?

잘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음식이란 어떤 음식을 말할까. 유기농 국산채소로 만든 자연식! 직접 자신이 먹기 위해, 손자손녀, 가족을 위해 정성스레 농약을 뿌리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로 차려진 밥상이다. 손맛이 묻어나는 고추장아찌, 나물, 깊은 맛의 된장찌개에다가 지역특산물 한두 가지가 어우러진다면 정말 훌륭한 식단이라 하겠다. 이러한 식단을 체험객들은 원하고 있다. 종종 그런 식사를 맞이할 때에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기까지 하다. 종종 마을어른들이 가면서 먹으라고 내어주는 삶은 감자는 맛도 맛있지만 고향의 정과 할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작은 감동들은 체험객들을 다시 찾게 만든다.

4. 토속적인 것이 그림다.

요즘 농촌은 옛날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 어떤 곳은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발전한 곳도 있다. 농촌체험객들이 대부분 도시민들임을 감안할 때 농촌의 변화된 모습은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체험객들은 무엇보다 새롭게 변화된 것들이 아닌 옛것—농가에서 사용하던 농기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해왔던 그러한 옛날 방식 등등—을 농촌에서 더 찾고자 한다. 도시에서는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농촌에 생생하게 유지·보전되어 살아있기 때문이

다.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 유래 등을 어린이들에게 들려준다든지 마을의 유적지를 찾아 가보는 것도 체험객들에게는 좋은 체험거리 중 하나이다.



▲ 갯벌체험에 참가한 아이들

도시인들은 누구나 농촌하면 초가삼간집의 굴뚝에 가마솥에서 밥이 익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리고 토속적인 반찬에 사투리 쓰는 인정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네주는 옥수수나 고구마, 감자를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농촌에 가보면 도시보다 더 현대적으로 개발이 되어 토속적인 분위기와 옛것을 느낄 수 없는 마을도 있어서 아쉽다.

농촌체험에 있어 가장 아쉬운 점은 방문한 농장에만 있다가 오는 것이다. 체험객들은 기왕이면 마을의 유래와 전설도 듣고, 마을의 특색이 무엇인지, 특산물은 있는지, 유적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마을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일상이라 사소한 것이 될 수도 있겠으나 체험객들에게는 낯선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갖게 만들고 친숙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마을을 둘러볼 때 종종 농촌체험행사 기획사의 가이드가 전적으로 모두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보다는 마을 주민이 가이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거침없는 전문 가이드의 해설은 마을에 대한 체험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데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그 마을만

의 특유한 사투리, 분위기 등 토속적인 냄새는 맡을 수가 없고 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마추어인 마을주민의 해설은 전문 가이드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5. 인터넷은 꼭 필요하다.

편안한가족여행도 인터넷 모임이지만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홍보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을 홈페이지가 있어도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검색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카페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도 이용하면 좋을 듯싶다.

6. 성공적인 농촌체험거리를 위해서는 화합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체험거리라도 마을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것들은 성공하기 어렵고 반강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여도 결과가 좋지 않다. 사전에 마을 분들이 서로 합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다. 무엇보다도 화합이 필요한 것이다. 어느 마을은 갯벌체험을 하기로 하고 체험가격을 마을 주민들이 상의하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체험프로그램 자체가 무산된 경우를 보았다. 분명 마을에 좋은 일이지만 마을 주민들간의 뜻이 잘 맞지 않아 무산된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

끝으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농촌체험을 농작물 키우듯이 애정을 가지고 가꾸어 준다면 땅이 정직하게 보답하듯이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